

# 애국지사 예우금 2배로...강원·제주 준보훈병원 도입

## 국가보훈부 2026년도 예산 확정

올해보다 3.7% 증액 6조6870억 원  
위탁병원 대폭 확대 의료 격차 해소

‘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’을 기치로 국민통합에 앞장서기 위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288억 원 늘어난 6조68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.

보훈부는 4일 2026년도 보훈부 예산이 올해(6조4467억 원)보다 3.7%(2403억 원) 늘어났다고 이렇게 밝혔다. 특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% 높이고,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월 157만~172만 원에서 315만~345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등 보상금이 크게 늘었다.

보훈부는 보훈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

참전명예수당 ▶	49만
무공영예수당 ▶	55만~57만
4·19혁명공로수당 ▶	50만1000
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	
(본인) ▶	15만
(배우자) ▶	15만

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·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,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. 위탁병원의 경우 현재 1005개에서 연간 200개씩 추가해 2030년까지 전국에 20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. 또 총남권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

등 신규 국립묘지 조성도 준비할 예정이다.

내년도 예산은 △사각지대 없는 보훈 △현장 목소리 반영 △보훈 인프라 확충 및 보훈 외교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288억 원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. 보훈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무공영예수당, 4·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정부안 3만 원에서 1만 원씩 추가 인상했다. 이로써 참전명예수당은 49만 원, 무공영예수당은 55만~57만 원, 4·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000원이 됐다. 이 밖에 8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본인을 위한 생계지원금 10만 원을 5만 원 인상했고, 내년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처음으로 매달 생계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.

매년 동결됐던 보훈단체 운영비도 정부안(7억 원)보다 15억 원 늘었다. 이는 권오

을 장관 취임 이후 지역 현장 방문 때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. 또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 사이클 실내훈련장을 설치하고 지방보훈회관 9곳 신축을 위한 예산 33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로운 보훈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.

보훈외교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. 보훈부는 튀르키예 ‘한국전 참전비’와 추모공간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 국외 현충시설 전수조사도 2028년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존·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
권 장관은 “2026년도 예산을 활용해 ‘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’이 이뤄지는 기틀을 만들고 국가를 위한 헌신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확산해 보훈이 국민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”고 밝혔다. 맹수열 기자



내년도 병무청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·확정됐다. 사진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상자들. 이경원 기자

## 정밀한 판정·병역면탈 단속에 204억 쓴다

### 병무청 2026년도 예산 확정

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편성  
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 100% 지원

내년도 병무청 예산이 올해 대비 9.4% 증가했다. 병무청은 ‘공정병역 구현’과 ‘병역이행 청년 사회진출 지원’ ‘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’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. 병무청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(4732억 원)보다 446억 원 늘어난 517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.

우선 ‘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’를 만드는 데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.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병역면탈 범죄 예방·단속에 204억 원을 들인다. 병역판정검사 시약·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 원,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 원 등이 반영됐다.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체계 본격 가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. 병무청은 본청과 광역수사청인 서울청·경인청·경북청에 최신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4대를 도입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지능·고도화되는 병

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. 병무청은 “최신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은 물론 분석 속도도 기존 장비에 비해 1.5배가량 향상되는 등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”이라고 설명했다.

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. 예산 2402억 원이 동원되는 ‘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’이 대표적이다.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(월 최대 55만 원)의 100%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병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간다. ‘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(2년 차)’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 사업에 87억 원을 투자, 병무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시스템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이다.

홍소영 청장은 “내년도 병무청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”며 “투입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해령 기자

## 국가대표 기술교육

### 2026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신입생모집

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확실한 선택!  
대한민국 대표 기술교육대학, 한국폴리텍대학  
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원스탑 통합실습으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, 폴리텍에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.

정시모집

**2025. 12. 29(월) ~ 2026. 1. 16(금) 23:59까지**

- ☑ 면 접(선택): 캠퍼스 마다 면접일정 다름
- ☑ 합격자 발표: 2026. 1. 29(목)

**한국폴리텍대학을 선택하는 이유!**

- ☑ **우리나라 최대규모 대학**  
- 전국 35개 캠퍼스, 4개 교육원 1개 고등학교 (28개 캠퍼스: 2년제학위과정 운영 중)
- ☑ **낮은 학비**  
- 한 학기 평균 120만원대의 등록금  
- 장학금 수혜율 66% 이상
- ☑ **높은 취업률**  
-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80.6% 취업률  
- 전국 대학 취업률 순위 상위 10위권 내 9개 캠퍼스가 포함됨 (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)
- ☑ **기업맞춤형 실무중심의 교육과정**  
- 실무 70%, 이론 30%

전공계열	주요 분야 및 학과
기계·공업	기계·공업 디자인(3D모델링), 기계 부품가공(CAM)
전기·전자	전기설비, 전력운영시스템, 신재생에너지, 시전자, 헬스케어
AI·SW·정보통신	AI, 빅데이터, SW개발, 클라우드컴퓨팅, 사이버보안
반도체·신소재	반도체 설계 및 제조공정, 반도체 장비개발, 신소재
로봇·자동차	협동로봇·지능로봇 개발 및 운용, 스마트팩토리
자동차	친환경자동차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), 자율주행자동차
산업설비	용접, 배관, 에너지, 공조냉동 등 설비 관리, 산업임수
바이오	제약,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, 바이오·나노소재
항공	항공모빌리티, 항공정비, 항공장비
디자인·미디어	디지털콘텐츠, 메타버스, 방송 및 영상, 시각디자인
특성화·실용특선	건축설계, 산업안전환경, 스마트표면처리, 의료공학, 주얼리디자인, 패션디자인

전화: 1588-2282  
웹사이트: <https://www.kopo.ac.kr>